

연구 노트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경제의 세계 경제 체제로의 진입과정 비교

1870-1914 : 1차재 수출 이론을 중심으로*

최 윤 국**

1. 머리말
2. 1차재 수출 이론(Staple Theory)의 개념
3. '선도 수출재'를 중심으로 본 발전 과정 비교
4. 교역 규모로 본 진입 정도
5. 맺음말

1. 머리말

19세기의 세계 경제는 산업 혁명을 통해 발전을 거듭해 온 영국이 주도적 입장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이후 북서 유럽의 경제가 뒤따라 형성되면서 이들 국가들은 세계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고, 중국에는 유럽 국경을 뛰어 넘는 신흥국가(Espacios vacíos)-호주, 캐나다, 아르헨티나- 에로의 새로운 시장의 확대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같은 사실은 비교 우위를 기초로 하는 자유무역에로의 길을 열게 하였으며, 또한 생

산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의미하였다. 이러한 자유무역 정책은 유럽국에 의해 이끌어지는 국제 노동 분업 체제의 형성을 가능케 하였으며, 이는 곧 세계경제체제의 형성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즉 공업화가 진전되었던 유럽 국가들은 제조업 분야에 특화하게 되었고, 새로운 해외 국가들은 1차 산품 혹은 원료를 공급하게 되는 세계경제체제가 공고히 형성되었다. 여기에서 무역은 1820년대 이후 '성장의 원동력(Máquina de Crecimiento)'으로서 상호간의 교역을 통한 국제 노동 분업의 도구로서 사용되어 왔다.

이러한 자유무역의 팽창은 농·공업의 발달, 수송의 발달, 인구의 급성장과 이에 따른 유럽 이민의 송출, 천연자원의 폭넓은 활용, 유럽 자본의 이동으로 말미암아 보다 밀접한 국제 경제 관계를 촉진케 되었다. 특히 19세기 중반 이후 더욱 발달된 육상·해상 운송의 변혁은 새로운 지역의 천연자원을 세계 무역 체제로 합병케하여 유럽의 1차 산품 및 원료 생산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하였다. 또

* 본고는 필자의 박사 학위논문의 한 부분을 수정, 보완, 요약한 것임.

** 책임연구원

한 뿐만 아니라 인적 자원, 자본, 기술의 유럽 경제의 생산 요소를 새로운 지역으로 이전케 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미국의 서부, 캐나다, 호주, 아르헨티나는 '1차재 수출 이론(Staple Theory)'이라는 경제발전 모델을 통하여 세계 경제에로의 진입을 시작하게 된다.

본고에서 논하고자 하는 이들 세 국가 -아르헨티나, 캐나다, 호주-는 1870~1914년 기간에 비슷한 여건 -영토가 크고, 인구가 적었으며, 온대기후권에 속함-속에서 각각 '1차재 수출 이론'이라는 유사한 발전 모델을 경험하였으며, 유럽의 수요에 의한 이들 1차재 수출(농산물)에 특화하면서 비슷한 시기에 도약단계(Take-Off)를 달성하여 중국에는 세계경제체제로의 두드러진 진입을 비슷한 시기에 실현한 만큼 삼국의 발달 과정을 비교하는 데에 본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현재에도 농산물 수출 강대국인 이들 세 국가의 과거 농업 발달사를 각국의 품목별 '선도 수출재(Super Staple)' -아르헨티나의 육류, 캐나다의 밀, 호주의 양모-를 중심으로 비교해 보고, 더불어 토지 및 이민 정책 그리고 세계 교역에서의 품목별, 국별 점유비로 세계경제체제로의 진입의 정도를 비교해 봄으로써 오늘날 이들 국가의 농업 발달의 근원을 알아보는 데에 연구의 목적을 둔다.

2. '1차재 수출 이론'의 개념

'1차재 수출 이론'은 최초로 캐나다 역사학

자들에 의해 연구되고, 호주 학파에 의해 더욱 발전되어 캐나다, 호주뿐만 아니라 아르헨티나 경제의 성장 모델을 이해시켜 주고 있다.

이 이론의 가정은 Watkins¹에 의하면 수출재(Staple Exports)가 경제의 선도 부문이어야 하며, 경제성장의 기초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또한 이 이론의 성립 조건은 첫째, 국내시장의 형성이 미약한 상태여야 하고, 둘째, 노동력과 자본에 비해 풍부한 토지라는 생산 요소를 지녀야 한다. 이와같은 가정하에서 경제개발은 1차 수출재에 대한 특화와 다양화 노력에 비례하게 되며, 이에 따른 수출활동에로의 파급효과는 국내경제와 사회의 발달을 촉진하게 된다.

결국 이 이론은 국제 시장에 특화된 1차 산품을 수출하게 되는 신흥 국가의 경제발전 경험을 분석하는 데에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이들 세 국가는 19세기에 이민에 의해 국가의 건설이 시작되었다는 점(영토가 넓고 상대적으로 자본 및 인구가 적었다.), 수출 지향적 1차재 수출 이론이 적용되는 점, 국제 경제에로의 높은 참여도를 달성하였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지니고 있다.

한편 Nurkse²는 이들 국가들이 소유하고 있는 천연자원에 대한 외부 수요(Demanda Externa)는 곧바로 이들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노동력과 자본의 도래라는 결과를 야기하

¹ Melville H. Watkins, "a Staple Theory of Economic Growth,"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May 1963, pp. 141-158.

² R. Nurkse, Patterns of Trade Development, Oxford, 1961, p.23.

표 1 세 국가의 외부 요소 유입 관련 지표

	아르헨티나		캐나다		호주	
영토. km ²	380만		990만		770만	
이민 유입. 천명 1870-1920	2,432		516		849	
영국자본유입 £ 10 ⁶	1870년	1914년	1870년	1914년	1870년	1914년
	-	320	20	515	74	416

주: A Green y M. Urquhart, "Factor and Commodity flows in the international economy," Journal of Economic History, 36, 1976, pp. 217.

Vicente Vázquez-Presado, El caso argentino, 1971, p.26.

는데, 이로써 1차 수출재 이론은 한 국가의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이외에 I.B. Kravis³ 는 한 나라의 경제발전을 설명하는 요소로서 수요도 중요하나, 진정한 수출 주도형 경제성장의 중심 요소는 수출재가 단순히 수출의 신장만을 위해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수출재의 공업 부문으로의 연계와 기타 경제 부문으로의 연결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Hirschman⁴ 은 이같은 연쇄 효과를 네 부문으로 나누어 보고 있다: 후방 연쇄 효과, 전방 연쇄 효과, 최종 수요 효과 그리고 재정 효과이다. 후방 연쇄 효과는 수출재를 생산하기 위한 필요한 직접수요를 창출해 낸다. 예로 아르헨티나 팜파스에서 농축산물과 캐나다 "Prairie"의 밀 생산과 수출을 제고하기 위해 건설된 철도를 들 수 있다. 전방 연쇄 효과는 수출재가 타부문으로의 inputs를 제공하면서 발생한다. 즉 아르헨티나에서의 목축업 발달은 냉동시설을, 농업의 발달은 식품산업을 각

각 발전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아울러 농업과 목축업을 연계시키는 알파파(Alfalfa)재배를 야기시켰다. 또한 국내시장이 형성되면서는 인구증가와 소득증대에 따른 소비재 수요가 창출되는 최종 수요 효과가 파생되었다. 아울러 수출재의 계속되는 성장은 수입을 가능케 하고, 자원재분배를 위한 행정기구를 설립케 하며, 교역을 통한 정부의 재정확보가 가능케 되고, 각종 인프라에 투자하기 위한 차관을 도입케 하는 재정 효과를 가져왔다.

이외에도 한 나라의 경제 성장을 위한 공급요인으로는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과 창의력(Inventiva) 그리고 정부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이고 시의 적절한 개입을 들 수 있다.⁵

⁴ Albert O. Hirschman, "A generalized linkage approach to development with special reference to staple," Cap.4 en su libro Essays in Trespassing: Economics to Politics and Beyond, Cambridge, 1981, p.65.

⁵ Richard E. Caves, Douglass C. North and Jacob M. Price, "Introduction: exports and economic growth," Explorations in economic history, 17, 1980, p.3.

³ I.B. Kravis, "Trade as a Handmaiden of Growth: Similarities between the Nineteenth and Twentieth Centuries," the Economic Journal, LXXXIX, 1970, p.859.

표 2 양모의 세계 교역, 1909-1913

단위: 천톤

수 입		수 출	
국 가	1909-1913	국 가	1909-1913
베 네 룩 스 3 국	150	호 주	283
프 랑 스	211	아 르 헨 티 나	145
독 일	201	영 국	171 ¹
영 국	363		
미 국	94		
세 계	1,149	세 계	1,083

주: ¹ 영국의 경우 유럽 국가로 재수출 포함.

자료: P.L.Yates, Forty years of Foreign Trade,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Ltd., 1959, p.109.

3. '선도 수출재'를 중심으로 본 발전 과정 비교

이들 세 나라의 경제발전은 수출재 산업에 의해 크게 성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시간에 세계경제체제로의 굳건한 통합을 달성하였다는 데 있다. 여기에는 각국의 선도 수출재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를 보면 아르헨티나의 육류, 캐나다의 소맥 그리고 호주의 양모를 예로 들 수 있다. 이들 수출재는 각각 국가경제를 선도하였으며, 나아가서 이를 바탕으로 수출재를 다양화할 수 있었고, 신기술을 도입하는 등 끊임없는 수출재의 다변화를 통하여 세계 경제로 편입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3.1. 호주와 아르헨티나의 양모 산업 비교

역사적으로 호주의 양모는 가장 중요한 수출재였으며, 이 산업의 성장은 영국 섬유 산업의 팽창하는 수요에 기인하였다. 그러나 19

세기 중반 이후 스페인산 면양이 영국으로부터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 아이레스 남동부에 위치한 리오 데 라 플라타(Río de la Plata) 지역으로 도입되면서 영국 자본은 집중적으로 아르헨티나와 호주 양국의 양모 산업에 투자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이후 양국은 세계양모시장에 경쟁적으로 편입되었다.

양국의 양모 산업을 비교해 볼 때, 호주의 양모산업은 아르헨티나의 양모산업보다 더욱 조직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빠르게 성장하면서 세계 1위의 양모 수출국으로 변모하였다. 즉 호주의 양모산업은 초기부터 기업정신, 변화하는 세계수요에의 대응력, 양모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따라서 이 산업은 호주에서 농촌사회의 조직력, 철저한 생산관리, 재정 및 마케팅의 체계화로 세계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다.⁶

⁶ John Fogarty, "Staples, Super-Staples and the Limits of Staple Theory", D.C.M. Platt and Guido Di Tella, Argentine, Australia and Canada Studies in Comparative Development, 1870-1965, St. Antony-McMillan, Series, 1985, p.22.

표 3 육류의 국제 교역, 1909-1913

단위: 천톤

수 입		수 출	
국 가	1909-1913	국 가	1909-1913
영 국	998	호 주	146
미 국	16	뉴 질 랜 드	124
독 일	32	덴 마 크	134
베 네 룩 스 3 국	13	아 르 헨 티 나	338
		미 국	224
		캐 나 다	24
세 계 총 수 입	1,075	세 계 총 수 출	1,200

주: 육류에는 쇠고기, 양고기, 돼지고기 및 그 가공 부산물을 포함함.

자료: Inter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e, International Trade in Meat, Roma, 1909-1913.

한편 아르헨티나는 1880년대 수출 지향적 성장이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을 때, 수출재는 양모, 가죽, 유지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중 양모는 호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수출재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1895년에 양국은 똑같은 수의 양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주에서 양 한 마리당 획득되는 양모가 평균 £6의 소득을 올린 반면, 아르헨티나에서는 £3.5에 불과하였다.

양국은 19세기에 걸쳐 영국을 비롯한 기타 유럽 제국의 성장하는 양모 수요에 적극 대응하였으나, 호주의 양모 산업이 다소 우위에 있었다. 이는 호주의 사육자들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양 사육방식으로 우수한 질의 양모를 생산하여 큰 이익을 남길 수 있었으며, 이는 더욱 발전되는 재정 및 마케팅 시스템으로 생산자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 가도록 배려되었다. 또한 사육기술의 발전을 거듭하여 후에 이러한 기술은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기타 국가로 이전되기도 하였으며, 아르헨티나는 호주산 양을 수입하기도 하였다. 즉 양모산업은

아르헨티나에서 보다 호주에서 더 큰 전·후방 연쇄효과, 재정 및 무역에 파급효과를 야기하였다.

3.2. 아르헨티나의 육류 산업

아르헨티나는 19세기 중반 국가의 건설 당시 풍부한 초지와 농업을 위한 천혜적인 자연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노동력의 부족, 농업의 초기 비용에 대한 재정 빈곤, 대토지 소유제의 불안정한 정착, 인프라 시설의 미비 등의 요인으로 우선 목축업을 기간산업화하였다.

아르헨티나는 19세기 말경 유럽, 특히 영국으로부터 육류 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육류 산업은 아르헨티나의 선도 수출재를 형성하였다.

아르헨티나의 육류 수출은 1909-1913년 기간에 국제 시장에서 미국을 밀어내고 제 1위의 수출을 기록하였다. 이는 우수한 종자의 도입과 교배로 목우의 질 개선, 팜파스의 질 좋은 목초, alfalfa 경작, 진보된 사육 기술의 도입, 그리고 기타 사회간접자본의 투자에 기인하였다.

표 4 20세기 초 팜파스의 농목 실태

단위: 천 ha, 천두

	경 지 면 적				목장면적	목우
	총경지면적	곡물	유지작물@	alfalfa		
팜 파 스 ¹	20,936	11,303	1,386	6,141	42,583	16,873
아르헨티나	24,587	12,162	1,800	7,240	112,316	29,117

주: ¹ 팜파스는 부에노스 아이레스주, 산타 페주, 포르도바주, 라 팜파주를 포함하는 약 60만 km²에 달하는 비옥한 토지임.

@ 98%가 아마임.

자료: III Censo Nacional, 1914.

아르헨티나 목축 산업의 성장은 냉동 설비, 항만 시설, 재정 및 금융 시스템의 근대화를 야기하였으며, 더불어 alfalfa의 경작을 두세 번의 곡물 소출후 반듯이 심도록 해 목우의 질을 높이도록 하였다. Alfalfa의 경작은 축산업과 농업을 연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이후 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팜파스는 육류뿐만 아니라 농산물의 생산 및 수출 산지로 부각되었다.

3.3. 세 국가의 소맥 산업 비교

근대 수출재인 밀은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각각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이는 특히 1880-1920년 기간중 유럽 국가들로부터의 수요 증가와 기타 내적

요소, 즉 이민 노동력의 유입, 철도 및 항만 시설의 확충 등의 요인에 기인한 것이었다.

세 나라 모두에서 밀은 중요한 수출재였으나, 특히 캐나다에서는 “Prairies(Manitoba, Saskatchewan, Alberta의 초지 지역을 가리킴)”지역을 효율적으로 개발함으로써 “Super Staple”의 위치를 확보하였다.

아르헨티나에서는 1890년대 중반까지 농업 부문의 초기 비용 부담으로 곡물생산은 일부 주 -Santa Fe, Córdoba주-에서만 소규모의 경작 방식으로 정부의 식민화 계획에 의해 이루어졌다. (반면에 호주 및 캐나다에서는 거의 전역에 걸쳐 가족농 제도가 정부의 강력한 개입으로 주도되었다.) 1895년 이후에도 아르헨티나의 곡물생산은 육류산업의 보

표 5 밀의 국제 교역

단위: 천톤

주 요 수 입 국		주 요 수 출 국	
국 가	1909-1913	국 가	1909-1913
베 네 룩 스 3 국	4,080	아 르 헨 티 나	2,590
프 랑 스	1,050	호 주	1,350
독 일	2,450	캐 나 다	2,460
이 탈 리 아	1,550	미 국	2,740
영 국	6,060	러 시 아	4,400
세 계 총 수 입	19,580	세 계 총 수 출	18,290

자료: De Yates, op.cit., p.70

완적 차원에서 발달되었으며, 정부의 미미한 지원 정책하에서 발전됨으로써, 정부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조직적인 식민화 계획하에서 1890년 이래 소맥산업이 크게 발달한 호주와 캐나다와는 좋은 비교가 된다.

호주의 경우 소맥 산업은 광범위한 지역에서 정부의 조직적이고 선별적인 이민정책과 가족농 제도(Yeomanry)에 의해 크게 발달하였다. 또 다른 한편으로 정부는 철도 개설, 농업 주무 부서의 설립, 새로운 종자의 개발과 보급 확대, 지역별 시험재배 및 대농민 교육에 힘쓰는 등 정부의 강력한 개입으로 호주의 소맥산업은 큰 발달을 할 수 있었다.⁷

호주와 대조적으로 아르헨티나는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주지 못하였는데, 예로 1877년에 아르헨티나 농업 부처의 예산은 호주 농업 부처(Dep. de Agricultura de Victoria)예산의 1/60에 불과하였다.⁸

캐나다는 아르헨티나나 호주보다 늦게 소맥 산업 붐("Boom" trigoero)이 일어났지만 경지면적과 수출의 급신장을 이룩하여 소맥은 캐나다에 있어 선도 수출재의 위치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캐나다의 소맥 산업 발달은 정부 주도의 효율적인 수송망의 개발, 신기술 접목(건조 기술), 조생종 종자의 개발, 농업협동조합 구성에의 지원 및 굳은 의지를 지닌 이민 노동력(people willing)의 유치 노력에 있다고 할 수 있다.⁹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캐나다 정부는 1870-1880년대 철로개설계획을 세우고, 철도 회사에 토지 양여, 보조금 및 독점 운영권을

표 6 Prairies 지역과 Pampas의 경지 면적 비교

	단위: 천 ha	
	1890	1915-16
Prairies	564	9,168
Pampas	1,738	13,020
- alfalfa	390	6,670

자료: Carl E. Solverg, "Land Tenure and Land Settlement: Policy and Patterns in the Canadian Prairies and the Argentine Pampas, 1880-1930", D.C.M. Platt and Guido Di Tella, op.cit., p.57.

부여하기도 하였다. 또한 유럽 및 미국으로부터 보다 많은 뜻있는 이민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1872년 '농촌개발강령'(Homestead Act)을 발표하여 이민자들에게 아르헨티나와는 달리 가족농 제도를 정착시켰고, 더불어 각종 이주 경비, 농기구, 종자, 기술 고문 및 흉년 시 보호 대책을 강구하였다.¹⁰

1896년 이후에는 국제 밀 가격의 상승, 철도 수송비의 인하, 신기술의 계속되는 도입 그리고 이민자의 대량 유입으로 캐나다의 소맥 산업은 보다 발전할 수 있었다.

3.4. 토지 정책과 이민 정책의 비교

여기서 한가지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 아르

⁸ Carlos F. Díaz Alejandro, "Argentina, Australia and Brazil before 1929," D.C.M. Platt and Guido Di Tella, op.cit., p.102.

⁹ G.M.Meier,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Transfer Mechanism: Canada 1895-1913,"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XIX, 1953, p.4.

¹⁰ William Marr and Michael Percy, "the Government and the Rate of Canadian Prairie Settlement,"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XI, 1978, p.760.

⁷ John Fogarty, op.cit., p.28.

표 7 아르헨티나와 캐나다 곡창 지대의 토지 보유 형태

단위: 천명

보유 형태	캐나다(1911) Prairies		아르헨티나(1912-13) Pampas	
	인구수	%	인구수	%
자 영 농	188.0	89.3	24.4	32.6
임 대 차 농	10.5	5.2	46.3	55.1
기 타 ¹	10.7	5.3	10.3	12.3
합 계	201.2	99.8	81.0	100.0

주: ¹ 아르헨티나에서 share croppers, 캐나다에서의 part-owners, part-renters 포함.

자료: R.W.Murchie, *Agriculture Progress on the Prairies Frontier*, 1936, p.102; Argentine Republic, Ministerio de Agricultura de la Nación, *Anuario agropecuario* 1935, p.487.

헨티나의 Pampas지역과 캐나다의 Prairies 지역에 대한 토지 분배 정책과 이민 정책의 차이이다.

캐나다의 경우 연방 정부가 Prairies지역을 가족농 사회 체제로 정착시키기 위해 1929년까지 Ottawa에 대한 법적 권한을 양도받아 연방 정부가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이를 실행할 수 있었다.

아르헨티나는 반면에 중앙 정부가 Pampas에 대한 개발권을 지방 정부에 양도함으로써, 중앙 정부 주도하에 조직적이고 합리적인 토지 분배 정책을 펴지 못하였다. Pampas¹¹ 지역 중에서 라 팜파주의 개발권만을 중앙 정부가 가졌고, 실제 곡창지대인 기타 팜파스 지역의 개발권은 지방정부에 위임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1911년 캐나다의 Prairies 지역은 다수의 농민이 농토의 90%를 소유하

게 되어 가족농 형태의 토지 보유 제도가 성립되었으나, 반면에 아르헨티나의 팜파스에서는 2만 4천여명이 농토의 32.6%를 점유해 대토지소유제도가 정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임대차농의 수는 아르헨티나가 캐나다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캐나다는 초기 식민정책 당시 이민자의 유입이 많지 않았으나, '농촌 개발 강령'이 실행되면서 가장이나 만 21세가 되는 성인에게 등록세 10불을 받고 160acres를 경작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자 서서히 유입이 증가되기 시작하였다. 더불어 경작 3년 후에는 경작자의 경작 의지가 분명하면 토지 소유권을 이양하였고, 더 나아가 강령 개정을 통하여 소유권 획득뿐만 아니라 추가로 농지를 구입시 acre 당 \$1로 가능케 하는 등 온갖 지원책을 아끼지 않았다.¹²

위와 같은 캐나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895년 이전까지는 북서지방에서의 내란과 미국으로의 이민 선호 등의 이유로 인구 유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지 못하였으며, 국제

¹¹팜파스는 20세기 초반부터 아르헨티나 경제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이 두드러졌다. 1930년대 팜파스가 차지하는 경제의 중요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농업 생산액의 86%, 축산의 62%, 산업의 86%가 집중되어 있었다.

Instituto de Investigaciones y Orientación Económica de la Producción de la Provincia de Mendoza, *Capacidad Económica de Argentina y su Distribución*, 1937.

¹²Revista de Economía Argentina, No 18, 1927, p. 348.

밀 가격의 하락 등으로 인해 농업은 소폭의 성장세에 그쳤다. 그러나 1896년 이후 국제 시장에서의 밀가격 회복, 철도 운송비의 하락, 밀 생산을 위한 지속적인 신기술의 도입 그리고 정부의 끈질긴 이민정책 등에 힘입어 Prairies 지역의 인구는 1891년 25만여명에서 1911년에 133만명으로 크게 늘었으며, 경작면적은 1890년에 56만 ha에서 1915년에는 917만 ha로 크게 증가하였다.

한편 아르헨티나의 팜파스는 캐나다의 Prairies와 달리 식민지 시대와 19세기 중반 이후로부터 잔존해 온 토지 소유에 대한 특권 계급층(Estancieros 혹은 Hacendados)이 형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특권 계급층은 전통적으로 노동력의 유입을 보다 필요로 하는 농업보다는 토지의 광대함에 의존하는 목축업에 특화해 왔다. 그러다가 19세기 말 곡물에 대한 수요 급등, 국제곡물가의 상승, 유럽 이민 유입으로 인한 풍부한 노동력에 기인해 농업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다.

캐나다와 호주는 다같이 가족농 주도의 농업 식민정책을 지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민 정책에 있어서도 아르헨티나보다 더욱 선별적이고 엄격하였다. 캐나다와 호주의 경우 유럽인을 “선호 종족(razas preferibles)”과 “비선호 종족(no preferable)”으로 엄격히 구별하여 가능한한 민족 동질성을 유지시키고자 하였으며, 제한적으로 유입하여 높은 1인당 소득을 지니고자 하였다.

아르헨티나의 경우는 위의 두 나라에 비교하여 다소 토지 소유가 어려웠으나, 나름대로 자유스러운 이민 정책을 펴 모든 유럽인들에게 문호를 개방하였다. 아르헨티나에로의 이

민자 국적을 보면 주로 이탈리아인과 스페인인들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은 위의 두 나라의 분류에 의하면 “no preferable”에 속하였다.

4. 교역 규모로 본 진입 정도

위에서 우리가 분석한 세 국가는 해외로부터의 이민 유입과 해외 자본 유치에 힘입어 각각 특징 있는 “선도 수출재”를 중심으로 수출재를 개발하여, 당시 전례 없는 호황으로 안정 속에 발전하고 있던 세계 경제 질서에 두드러진 진입을 하게 되었다.

1913년 세계 교역에서 점유하는 국별 비중을 보면 아르헨티나는 2.96%로 세계 8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으며, 캐나다는 2.42%

표 8 세계 교역에서 차지하는 국가별 비중, 1913

국	가	비	중(%)	
영	국		14.69	
미	국		13.95	
독	일		13.81	
프	랑	스	7.97	
네	덜	란	드	7.11
인		도	4.76	
벨	기	에	4.03	
아	르	헨	티	2.96
이	탈	리	아	2.76
캐		나	다	2.42
스	칸	디	나	2.29
호		주	1.97	
스	위	스	1.53	
세		계	100	

자료: P.L. Yates, Forty years of Foreign Trade,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Ltd., 1959, p.166.

로 세계 10위 그리고 호주는 1.97%로 세계 12위에 랭크되었다.

품목별로는 밀 수출에 있어 아르헨티나가 세계 3위, 캐나다가 4위, 호주가 5위를 차지하였으며, 옥수수의 수출은 아르헨티나가 세계 1위에 랭크되었다. 육류 수출은 아르헨티나가 세계 1위, 호주가 3위를, 양모 수출에 있어서는 호주가 1위 뒤를 이어 아르헨티나가 2위에 랭크되었다.

위의 3개국중 아르헨티나는 세계시장의 수요 변화에 따른 수출재의 다양화 노력과 양적 수출 정책에 힘입어 비교한 3개국중 교역면에서 가장 큰 규모를 보여 주었다.

이들 국가들의 주요 교역대상국들을 보면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벨기에 등으로 모두 세계 경제에 있어 주도국들로 교역의 지형학적 분배면에서 볼 때는 다분히 다양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교역유형에 있어서는 비교우위에 따른 유럽 국가들의 공산품 수출과 신흥 국가들의 1차재 수출 및 공산품 수입이라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1883-1913년 사이에 연평균 성장률을 보면 아르헨티나가 7.6%로 가장 높았고, 캐나다 4.8%, 호주 1.6% 순이었으며, 1913년의 1인당 수출은 호주가 \$79.8, 아르헨티나 \$66.9, 캐나다가 \$58.4였다. 또한 같은 해 1인당 제조업 생산은 캐나다가 \$86.5로 가장 높았고, 호주 \$77.4, 아르헨티나가 \$23.5로 가장 낮았다.¹³

당시 아르헨티나의 높은 경제발전은 상대적으로 캐나다, 호주와 1인당 제조업 생산 부문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여 줌으로써, 향후

경제발전과 성장면에서 아르헨티나는 열세에 놓이게 되었다.

호주의 경우 가장 늦게 발견된 대륙이나 이후 대단히 빠른 성장률을 기록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빠른 성장은 40년대에 양질의 양도입, 50년대 금맥의 도입 그리고 계속된 이민자의 유입에 기인하였다. 이후 1890년까지 호주 경제의 발전은 철도와 양모 산업에 기초하게 되었으며, 19세기 말에 와서는 냉동육과 밀이 주산업이 되면서 세계경제질서에 통합되었다. 한편 수출성장률은 삼국가운데 가장 낮았는데 이는 국내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공업화에로의 노력을 동시에 기울인 것으로 사료되었다.

아르헨티나는 먼저 가용 자원을 단순 이용하는 양모 산업을 발전시켰고, 1860년대 이래 이민유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외국자본의 유입 그리고 1880년 ‘영토의 정벌(Conquista del Desierto)’이 완료되면서, 외적요인(이민, 자본, 기술)에 의해 농업경제체제로 전환하게 되었으며 이후 육류산업의 발달로 이어지면서 세계경제질서에 진입하게 되었다.

캐나다는 1870년까지 여우 가죽, 목재, 어업에 의존하였으며, 1890년대에 들어서 소맥산업의 성장과 금속, 그리고 축산물의 수출에 힘입어 도약단계에 들어서게 되었고 아울러 세계경제질서로의 진입을 실현하였다.

5. 맺음말

이상과 같이 우리가 비교해 본 아르헨티나, 캐나다, 호주 3개국은 광대한 토지 자원, 근

¹³W.Arthur Lewis, Growth and Fluctuations 1870-1913,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1978, p.196.

대 유럽 이민에 의해 나라의 건설이 이루어진 점, 유럽 주도의 산업 혁명 영향권밖에 속해 있었다는 점, “1차재 수출 이론”을 바탕으로 한 수출 지향적 경제성장을 이룬 점, 동시대에 도약단계에 들어서는 한편 세계경제 질서에서의 높은 참여도라는 점에서 공통성을 지니고 있어 비교 분석해 보았다.

이들 국가는 각각 “1차재 수출 이론”을 특색있게 발전시키었고, 발전 모델의 성립 조건을 구비하였으며, 경제의 타 부문으로의 연결 효과(전방 연쇄 효과 - 목축에서의 지속적인 신기술 접목, 알파파의 재배, 냉동설비, 농업에서 소맥산업 파생; 후방연쇄효과 - 철도; 최종수요효과 - 인구와 소득의 성장에 따른 국내시장의 형성; 재정효과 - 수출증가)를 발생케 하였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의 농정, 기술 제공, 마케팅, 농촌 사회 조직, 수출 정책 등에 보다 조직적이고 합리적인 개입 그리고 기업가 정신과 창의성이라는 점에서는 캐나다와 호주가 단연 두드러진 면을 보여 주어 아르헨티나보다 좀 더 계획적으로 경제발전을 이끌어 나아갔다고 볼 수 있다. 이와같은 점은 농업에 천혜적인 조건을 지닌 아르헨티나가 오늘날 캐나다 및 호주 경제에 크게 뒤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끝으로 세계 경제로의 진입 시기를 보면 1870년대에 아르헨티나와 호주가, 캐나다는 좀 더 늦은 1890년대에 각각 성공적으로 진입하였다.

참 고 문 헌

- Argentine Republic, Ministerio de Agricultura de la Nación. 1935. Anuario Agropecuario.
- Caves, Richard E., North, Douglass C. and Price, Jacob M. 1980. “Introduction: Exports and Economic Growth,” *Explorations in Economic History*, No. 17.
- Choi, y.k. 1988. *Inserción de la Economía Argentina en la Economía Internacional a través del Proceso de la gran Inmigración Europea (1870-1914)*, Tesis Doctoral, Uni. Complutense de Madrid, Spain.
- Conde, R. Cortés y Hunt, Shane J. 1985. *The Latin American Economies: Growth and the Export Sector, 1880-1930*, Holmes and Meier, N.Y.
- Díaz Alejandro, Carlos F. 1985. “Argentina, Australia and Brazil before 1929,” Platt, D.C.M. and Di Tella, Guido. *Argentine, Australia and Canada Studies in Comparative Development, 1870-1965*, St. Antony-McMillan.
- Firschman, Albert O. 1981. “a Generalized Linkage Approach to Development with Special Reference to Staples,” in *Trespassing: Economics to Politics and Beyond*, Cambridge.
- Fogarty, John. 1985. “Staples, Super-Staples and the Limits of Staple Theory,” Platt, D.C.M. and Di Tella, Guido. *Argentine, Australia and Canada Studies in Comparative Development, 1870-1965*, St. Antony-McMillan.
- Green, A. y Urquhart, M. 1976. “Factor and Commodity flows in the International Economy,” *Journal of Economic*

- History, No. 36.
- Instituto de Investigaciones y Orientación Económica de la Producción de la Provincia de Mendoza. 1937. *Capacidad Económica de Argentina y su Distribución*.
- Kravis, I.B. 1970. "Trade as a Handmaiden of Growth: Similarities between the Nineteenth and Twentieth Centuries," *the Economic Journal*, LXXXX.
- Lewis, W. Arthur. 1978. *Growth and Fluctuations 1870-1913*, George Allen and Unwin, London.
- Marr, William. and Percy, Michael. 1978. "the Government and the Rate fo Canadian Prairie Settlement,"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XI.
- Meier, G.M. 1953.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Transfer Mechanism: Canada 1895-1913,"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XIX
- Murchie, R.W. 1936. *Agricultural Progress on the Prairies Frontier*, the McMillian Co., Toronto.
- Nurkse, R. 1961. *Patterns of Trade Development*, Oxford.
- Solverg, Carl. E. 1985. "Land Tenure and Land Settlement: Policy and Patterns in the Canadian Prairies and the Argentine Pampas, 1880-1930," Platt and Di Tella, ...
- Watkins, Melville H. 1963. "a Staple Theory of Economic Growth,"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 Yates, P.L. 1959. *Forty Years of Foreign Trade*, George Allen and Unwin Ltd., London.